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3년 7월호 첫발행 1992.5.25 통권13호 발행인 최현숙

함께 가는 길

1993.7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께 가는 길

1993. 7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함께 가는 길
7월호 <13호>

짜 임 새	일하며 생각하며 / 2	편하게 남의 아이 돌보면서 돈을 벌려고 해서 부끄러워요. 남 미영
	만나보았습니다. / 4	마포 농촌탁아소를 찾아서 서 정은
	기획 / 8	전환기 사회와 사회복지의 전망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부
	아동교육 / 15	방학통신문 아동교육분과
	아동교육연구 / 20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1) 조 선경
	활동총괄 / 31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토론회
	탁아소 별곡 / 32	진달래 동산의 통일교육일지 김 실이
	글마당 / 34	빛이다 여보야 윤 주민
	소식과 소식 / 36	
	우리들의 목소리 / 49	이주영, 신미자, 심선경
	편집부에서 / 56	

* 탁아소 백과 / 3 소아비만 (2) -영아 * 우리 탁아소 별미 / 14
또래놀이방의 주먹밥 *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30 여름철 물놀이
* 새책소개 / 52

☆ 표지사진: 아이들은 밖에 나들이 나간다는 점 하나에도 흥분하기 마련인데 동물
원엘 간다니.. 6월 18일 안산지역위원회 진달래동산과 꿈나무 어린이네는 자연농원 동물
원 견학을 갔다왔다.

일하며 생각하며

편하게 남의 아이들 돌보면서

돈을 벌려고 해서 부끄러워요.

남 미영 (부회장, 구로 새터 어린이집)

얼마전 새터어린이집에 실습생들이 왔었다. 2주간의 실습을 마치고 마지막날 교사들과 함께 둘러앉아 평가시간을 가졌다. 한분은 다른 곳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었고 나머지 두분은 어린이집이 처음이었다. 평가를 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양성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했던 어린이집이 너무 관념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어린이집은 하루종일 아이들이 있으면서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보호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교사’를 떠올리면 유치원을 생각하게 되고 아이들을 동그렇게 둘러앉히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부르며 아이들이 따라 하는 그런것을 상상했지 아이들과 하루종일 뒹굴면서 함께 놀고 함께 먹고 함께 잠자는, 더군다나 청소도 설거지까지 하는 선생님은 생각도 못해봤다는 것이다.

“교사들의 헌신성은 높이 살 만 해요. 특히 영아에 대한 돌봄은 지극하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그러나 교사들이 너무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영아탁아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까지 신경을 쓰면서 해야 되는거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시 생각해 봐야 하겠어요.”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아이들 교육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야겠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고 아이들의 연령이 낮아서 쉽지 않은게 사실이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직장다니면서 시간에 쫓기며 사는 엄마들이 집에서 거의 할 수 없는 부분이 아이들 교육이기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거든요. 물론 안전하게 맡기고 직장에서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성장시기에 적절한 교육은 어린이집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모들과의 관계나 교사들간의 관계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 자연스럽고 좋아요. 그래서인지 아이들간의 관계도 무척 원만하고 서로 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아이들도 다 자라고 해서 집에서 놀이방을 해볼 생각으로 양성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편하게 남의 아이들을 보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것 같아 부끄러워요. 특히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린이집이 무척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그날 실습생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단지 새터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동안의

2.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전개와 특성

본 장에서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복지서비스로 대별되는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규정요인들과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은 제도의 도입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5.16군사 쿠데타 이후부터 1977년 의료보험제도 실시 이전까지, '77년 의료보험 실시 이후부터 '88년 국민연금제도와 최저임금제 실시 이전까지, 그리고 '8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한국의 사회복지입법은 5.16군사 쿠데타 이후 대량으로 입법되는데 이 시기는 한국 자본주의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다. 사회복지입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생활보호법(1961년), 한국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의료보험법(1963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대량 입법의 배경에는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들 수 있는데, 그 내용성을 확보하기는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경제적 측면에서 재원사용의 우선 순위가 경제개발에 있었고 군사정권의 복지욕구 수용정도도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재정상의 문제로 전면적으로 실시되지 못한 점, 1963년 의료보험의 강제규정이 삭제된 점, 유신체제 출범 이후 1973년 제정된 국민복지연금법이 시행되지 못한 점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난다.

1980년 신군부 정권이 등장하면서 생활보호사업의 전면개정(1982년), 노인복지법(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1981년), 아동복지법(1984년) 등이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고,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가 준비되고 국민연금법(1986년), 최저임금법(1986년)이 제정되어 사회복지정책이 제도적으로 확충되게 되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확충의 배경에 신군부의 정당성 확보라는 측면이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으나 80년대 초반의 경제불황이 제도의 내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특히 80년대중반 이후 주목할 점은 이 시기가 광범위한 민주화 운동기였다는 점이다. 즉 3대 복지정책의 시행은 광범위한 민주화투쟁에 대한 탄압과 '양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이며, 80년대 중반의 한국경제의 호전도 일계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전개과정을 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전개를 결정하는 자본의 축적과 그 생산메카니즘인 산업화의 양상과 이에 대응하는 계급갈등 그리고 국가의 역할이라는 일반적인 세가지 범주가 관철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전개는 사회정책의 경제적 기능성과 관련된 경제적 재생산과정, 권위주의적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 여부, 계급갈등과 관련되어 정치적, 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창출,관리라는 사회적 재생산을 요인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요인들이 작용한 것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특성으로는 낮은 사회복지재정지출, 수혜범위와 수준의 열악성, 복지수혜자의 참여구조와 일관된 전달체계의 부재로 요약가능하다.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에 대한 기능성 여부를 정책지향의 중심에 둔 결과 정부재정은 성장을 위하여 우선 배정되고 사회복지의 잔여적으로 결정된다. 이는 절대적인 복지재정의 결핍을 야기하여 복지정책의 수혜범위와 수준의 성장에 결정적인 걸림돌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실시되는 정책 역시 급속한 산업화과정에서 야기되는 산업재해, 노동력의 보존, 기술인력의 공급이라는 제한적인 역할만을 수행했다. 이는 산재보험의 도입이나 '77년 의료보험의 대기업우선 실시, 생활보호사업의 직업훈련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의 확보라는 측면은 신정권의 등장 이후 복지입법이 대량 등장하는 사실로 확인이 가능한데 이는 사회복지정책을 정치적 안정 및 국민적 지지를 도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이러한 배경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그 질적 수준을 빈곤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참여를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은 배제되어 정책 형성과정에서 민주성과 일관성의 견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사회적 재생산의 범주에서 주목할 것은 분단이데올로기가 사회복지정책에 미친 영향이다. 분단의 현실속에서 북한체제와의 경쟁은 과중한 군사비로 인한 상대적인 복지재정의 약화를 가져왔으며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요구와 복지정책 결정에 국민의 참여 역시 체제의 안보라는 측면에서 통제되어왔기 때문이다.

3. 전환기 지형변화와 사회복지정책의 전망

이상에서 확인된 사회복지정책 규정요인들은 새로운 정부의 등장이라는 가시적 현상으로 표현되듯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서 과거와의 '연속'과 '단절'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회의 제반 측면에서 그 영향을 나타내고 규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지만 여기서는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의미있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상황변화는 정치, 경제, 사회라는 세 측면으로 분류가능하며 이러한 세 측면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관련하여 '연속'과 '단절'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긴장상태를 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요소들을 살펴보면,

정치적 측면으로서는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등장한 정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이 경감된 측면과 반면 다양한 복지욕구의 분출이 용이해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측면으로는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것으로 요약되는 일련의 경제적 변화들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야기하는 긴장을 상정할 수 있다.

사회적 측면으로는 복지요구와 관련된 계급갈등과 운동이 다양, 다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과 이데올로기선상의 사회변화와의 관련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정치적 측면을 검토하여 보자.

그간의 사회복지정책형성의 과정을 볼 때 새로운 정권의 초기에 대규모의 복지입법이 나왔다는 것과 이것이 정권 창출과정상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정권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정당성을 크게 확보하고 있는 현 정부밑에서는 이러한 형식적 차원에서의 사회복지확대 조치는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수당, 실업보험과 같은 일부 제도를 제외하고는 선진 복지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를 형식적인 면에서는 거의 갖추고 있다는 점을 상정할 때 이러한 전망은 설득력을 더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면에 다양한 복지욕구의 분출은 더 용이해졌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권위주의적 정권의 강압적 통제하에 억눌려 있었던 국민의 복지요구의 가시화라는 측면에서는 사회복지의 확대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특히 그간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저급한 수준은 이러한 요구내용의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의 제고와 수혜범위의 확장이라는 방향으로 이동하리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과 관련된 경제적 지형의 변화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과 이에 기반한 신정부의 경제정책이라는 틀 내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지난해 이후 한국경제는 5% 미만의 낮은 경제성장율과 함께 마이너스를 보인 투자증가율, 노동자의 근로의욕상실과 대외경쟁력의 약화로 나타난 구조적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을 배경으로 한 신경제정책의 방향은 두가지로 요약가능하다.

첫째, 한국경제의 침체원인을 87년 이후 민주화과정에서 국민 각계층의 욕구 분출과 집단이기주의의 발현이라는 분석에 근거하여 국민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민주화된 사회에 걸맞는 경제'라는 방향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통분담론'이 현상한 것이다.

둘째는 금리의 인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정부규제의 완화, 공공지출의 조기집행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경제활동의 자율성보장과 경제부양책이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방향에서 전망되는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의 전망은 불투명하리라 본다. 과거와 같은 성장위주 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국가재정부분을 압박할 것이며 생산에 기능적인 최소한의 복지정책이라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고통분담론을 내세워 선성장 후분배의 논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복지정책의 확대가능성은 이러한 경제정책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고통분담을 위해서는 어떤 보상이나 유인이 있어야만 한다. 미래의 분배를 위해

서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잠재적' 분배를 현실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장이 뒤따라야 하며 사회복지에 이러한 분배와 형평의 사회적 제도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가 투자가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들어가지 않고 노동자의 근로의욕이 상실된 데 기인한 것이라고 할 때 경제정책이 아무리 투자요인에 대하여 강조할지라도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을 상실할 것이며 오히려 각급 노조운동의 활성화나 조직강화를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갈등의 분출이 상대적으로 민주화된 현 상황에서 과거보다 용이하다고 할 때 노동자와 관련된 복지정책의 수정, 보완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화의 측면과 관련된 사회복지정책의 전망을 조망해 볼 때, 두 가지의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하나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복지제도가 가지는 체제재생산적 이념지향성과 관련된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정책의 발전 역사를 볼 때 이전의 정권이 사회복지정책을 체제안정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해온 점이 그것이다. 즉 사회보장제도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는 공동화된 제도만으로도 일정기능을 수행해 왔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성장과 사회복지요구투쟁, 각 영역별 부문운동의 성장은 공동화된 사회복지제도의 질적 전단계기로서 작용할 것이다.

고려해야 할 것은 안보이데올로기의 변화와 통일논의에 관한 것이다. 국방비에 대한 과중한 정부재정의 할당으로 지속적으로 복지재정성장의 장애가 되어왔던 안보이데올로기는 세계의 탈냉전분위기와 전국민적인 통일논의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약화되리라고 본다. 이러한 분위기는 자연스럽게 국방비의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러한 잉여재정은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의 잠재적인 재원으로 전화가 가능할 것이다.

반면에 변화된 정치지형속에서 다양하게 분출될 수 있는 복지요구가 일부 또는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분산적으로 표출될 경우 오히려 희석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민중의 생존권과 삶의 욕구가 그 근처에 자리잡고 있는 복지에의 지향성이 개별적으로 복지수혜계층의 집단이기심으로 오인, 전화될 수 있는 것이며 이것이 정부의 선별주의적이고 잔여적인 정책과 맞물릴 경우 신사회에 부합하는 전면적이고 개혁적인 복지와는 상충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정책의 전망과 관련된 한국사회의 상황변화는 사회복지정책의 양적확대와 질적 심화라는 측면에서 상호갈등적인 긴장요소가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 사회복지정책 전망의 긴장요소

구분	부정적 요소	긍정적 요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정당성의 강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복지요구의 다변화와 운동역량의 분산	복지욕구 분출의 용이성 경제구조조정과 고통분담론의 현실화 탈냉전구조와 민중운동의 성장

4. 맺음말

이 글의 목적은 두가지였다. 하나는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의 변천과정을 통하여 그 규정요인을 정리하고 이러한 규정요인이 새로운 정부의 등장으로 표현되는 전환기에는 어떠한 변화의 모습을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러한 지형변화속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전망을 거시적으로 모색해보는 것이었다.

지금까지의 거시적 논의를 최근에 신정부가 추진하려는 미시적인 사회복지정책과 연관시켜 보면 좀 더 구체화된 전망을 시도할 수 있다.

본문에서 서술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을 규정해 왔고, 또 규정해 갈 요인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신정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일 것이며 이것이 향후의 사회복지정책 전반을 규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 강하게 부각되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이 장기적으로 사회복지를 규정하는 양상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즉 김영삼정권 이전에 3공화국과 5공화국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났던 '사회복지를 실질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의 성장정책이 아닌 '사회복지를 경제성장정책과 기능적으로 결합시키는' 정책이 추구될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정부나 관련기관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분배와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복지정책 추구' 즉 소위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개발'이라는 구호는 복지를 배제하지 않되, 복지를 경제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추구는 분배없는 성장정책의 한계 노정, 사회복지확대의 사회구조적 요인의 상존이라는 한국사회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나 혹은 경제정책 전반에 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 부분은 다른 사회복지부분보다 적극적인 추진이 예상된다.

최근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탁아시설의 확대, 농어민 연금의 도입 등의 복지정책은 각각 산업구조조정, 생산인력 부족에 따른 유휴인력(기혼여성)의 확보,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라는 경제 상황의 전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반면에 성장과 복지의 기능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정책은 경제성장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여타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현상을 유지하되,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점(늘어나는 복지수요)은 시장메카니즘의 도입 혹은 민간부문의 책임 분담으로

해결하려는 정책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즉 복지의 책임을 국가가 떠 맡는 것이 아니라 시장메카니즘을 도입하여 수익자부담 원칙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상품화'(예를 들어 양로원 등 복지시설의 유료화)를 유도하고 기업과 민간복지단체(종교단체 등)에게 사회복지의 책임을 분담시켜, 사회복지부분에 대한 국가재정의 투입을 억제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장기적으로 볼 때 복지의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가족, 기업, 지역사회 등이 분담하는 소위 '복지다원론'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처럼 신정부가 추진하게 될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복지부분의 기능성 강화', '복지책임의 다원화'라는 사회복지의 두 축은 물론 본문에서 지적했듯이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 변형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져 있다. 즉 냉전의 해체에 따른 방위비의 축소와 복지비의 증액, 사회복지요구운동의 활성화, 민중운동의 성장 등이 신정부의 정책기조에 반작용을 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최근에 그 목소리가 점차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정부 혹은 향후의 사회복지정책기조를 변형시킬 만한 강한 힘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 작금의 현실인 것이다.*

우리 탁아소 별미 / 돈대놀이방의 주먹밥

'신문속에 세상이 보인다' 연재를 끝내고 '우리 탁아소 별미'란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지탁연 가족 여러분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음식, 별난 음식,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간단한 조리법과 주의사항, 그 음식에 얹힌 재미난 이야기 등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편집자 주)

바깥놀이를 자주 나가는 우리 놀이방에서는 준비가 간단하면서도 남은 야채, 고기 등을 이용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게 무엇일까 생각하다 궁리해 낸 것이 '주먹밥'이다.

참쌀을 섞은 밥을 뜨겁게 한 후 소고기를 갈아 갖은 양념(소금, 깨, 참기름, 파, 마늘)을 해서 달달 볶는다. 그 볶은 소고기를 밥과 잘 버무려 밤물만한 크기로 예쁘게 빚는다. 여기에 짭두기, 물만 갖추면 훌륭한 야외도시락이 되는 것이다. 그냥 밥과 반찬 또는 김밥만 먹는 것보다 더 쉽고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주먹밥이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어 속이 든든한 가운데 맘껏 뛰놀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주먹밥을 한입에 털어넣는 아이의 모습은 뒷산과 어울리는 또 하나의 자연스러움이다.

(김연희)

아동교육

방학통신문에 관하여

아동교육분과

각 탁아소에서는 대개 7월말과 8월초를 전후하여 방학을 한다. 이 방학은 교사들에게는 쉴 새 없었던 상반기를 정리하고, 하반기를 힘있게 맞이하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아주 소중한 시간이다. 그러나 부모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학기간보다는 휴가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혹은 시간이 맞지 않으면 친척이나 대신 아이들 돌보아줄 사람을 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 부모간에 방학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어려움과 고충을 이야기하고 방학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본다면, 방학을 좀더 교사는 책임감있게 맞이하게 되며, 부모들 역시 아이들과 교사에게 방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하고, 방학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분과에서는 방학을 맞이하면서 각 지역에서 내는 방학 통신문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단순히 방학동안의 어려움을 부모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같이 해결하는 것으로 바라보며, 이의 대안으로 방학통신문의 내용과 형식을 정리했다. 각 탁아소에 맞게 활용한다면 좋을 것이다.

방학을 맞이하기전에 교사가 할 일

- 우선 방학기간을 정할 때 부모회 등을 통해 상의한다.

이때 방학동안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부모들이 방학을 단순히 탁아소에서 정했으니까 따른다는 식의 소극적인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방학동안 부모들이 대안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상의한다. 작년 구로지역의 경우 말길 때가 없어 아이를 방에 가두어 놓고 일 나갔다는 이야기를 방학 이후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방학동안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방학 통신문을 보낸다.

방학동안 아이들의 지켜야 할 규칙이나 약속 등을 하는 내용을 실어줌으로써 아이들에게 부모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한다.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제시해 줌으로 방학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한다. 교사나 부모들끼리 연락처를 알고 있어 만약의 사태에 주의하고 가벼운 엽서나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 하는것도 좋다.

- 방학통신문이 나가기 전에 미리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써 그냥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방학통신문을 내는 의의를 충분히 살린다.

* 방학통신문의 예를 제시한다. 각 탁아소에서 활용하면 좋을 듯 하다.

부모님께 보내는 방학 통신문

어린이집

부모님들 보세요!

방학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입니다. 개학은 월 일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들 방학동안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아이들과 잘 지내시기 바라며 저희 교사들은 1학기를 어떻게 보냈나 평가도 하고 다른 탁아소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교사수련회(8월 2~4)에 참가하여 많이 배우고, 더욱 힘내어 아이들과 더욱 신나게 지낼 수 있도록 알차게 방학을 보내겠습니다. 즐거운 방학되기 바라며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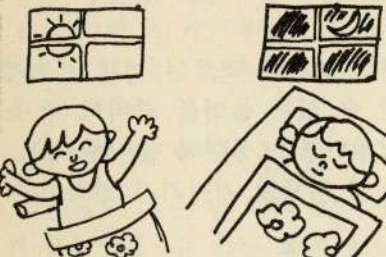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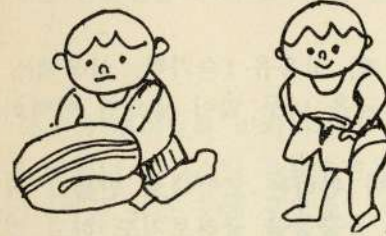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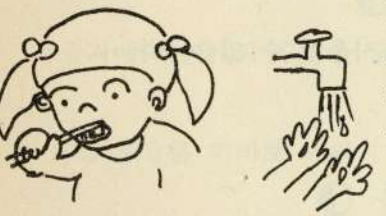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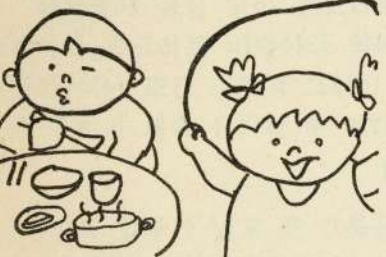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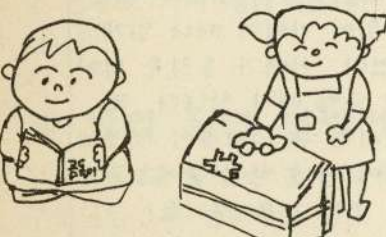
◇ 애들아, 우리 약속하자. (방학동안 나도 잘 할 수 있어요)

- 1)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지 않아요)
- 2) 자고 난 이불은 내가 개고 옷은 스스로 입고 벗으며 스스로 정리합니다.
- 3)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고, 먹기전에는 손을 씻어요.
- 4) 가지고 논 장난감은 반드시 내가 치워요.
- 5) 언니, 오빠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 아빠께 떼를 쓰지 않아요.
- 6) 찬음식이나 필요없는 장난감(총, 칼 등)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아요.
- 7) 모르는 사람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 사랑스런 우리 _____ 에게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 이 난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서 주세요.)

< 어린이 생활 계획표 >

지켜야 할 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날짜						
	약속						
	날짜						
	약속						
 자고 난 이불은 내가 개고 옷은 입고 벗고 내가 정리합니다	날짜						
	약속						
	날짜						
	약속						
 매일 이를 닦고 세수하고 손은 항상 깨끗이 씻습니다.	날짜						
	약속						
	날짜						
	약속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운동도 매일 합니다.	날짜						
	약속						
	날짜						
	약속						
 동화책도 보고 장난감을 가지고 나면 잘 정리합니다.	날짜						
	약속						
	날짜						
	약속						

* 집에서 어린이 생활 중 그림과 같은 약속을 지킬 때에는 ♥표, 지키지 않을 때에는 x 표를
직접 어린이가 하도록 하여 좋은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 ♡

오랫동안 엄마 아빠와 함께 있게 되니 아이들이 떼를 쓰거나 조르는 경우가 많겠지요. 부모님이 미리 아이들과 함께 혹은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과 30분이면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충분히 놀아주세요. 아이들이 아주 즐거워하겠지요. 혹 친척집에 가 있더라도 이 자료를 가져가서 친척어른, 형들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1) 밀가루 반죽놀이

*** 준비물>** 밀가루 3컵, 소금 1컵, 물 1컵 조금 못되게, 식용유 1순가락, 식용색소
앞의 재료를 모두 섞고 수제비 반죽하듯이 한다.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뻘뻘하여 반죽이 잘 되지 않으니 주의한다.)

*** 놀이방법>** 밀가루 덩어리는 감촉이 좋고 아이들이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고 어떤 틀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있어 무척 좋아합니다. 둥글둥글 굴려보기도 하고 길게 늘어뜨리기도 해보고, 가위를 주어 잘라서 놀 수 있게 해줍니다. 또 소꿉장을 주면 소꿉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놀이 난 이후 비닐에 꼭 싸서 냉장고에 보관하면 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동시 읽기

여름날

서정숙

꽃들이
답다고
“아이, 더워!”
줄라대니까

나비가
펄럭펄럭
부채질해요

새들이
답다고
“아이, 더워!”
줄라대니까

나뭇잎이
살랑살랑
부채질해요

우선, 동시를 조용히 읽어 주세요.
한대목씩 읽어 아이가 따라 읽게
하세요. 엄마, 아빠가 동작을 섞어
해 주시면 금방 따라 합니다. 또
시간이 되시면 큰 달력종이 뒷면에
그림을 넣어 써서 벽에 붙여놓고
같이 읽어 보면 더욱 좋지요

3) 수박씨 심기

*** 준비활동>** 흙, 수박씨, 부엽토, 사이다병과 같은 1리터짜리 병

*** 수박씨 심기>** 부엽토와 흙을 잘 섞어 음료수병을 가로로 눌러 구멍을 크게 내고 수박씨를 심는다. 심은 날짜를 기록하고 싹이 날 때 마다 그림으로 그린다.

4) 여러가지 물놀이

어른들도 더운 날 짹짹 쏟아지는 물을 보면 시원함을 느끼지요. 아이들에게 물놀이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놀이감입니다. 엄마 배속에서부터 아이들은 물과 친숙해져 있어서 편안함을 느끼며, 물을 통해 여러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 물놀이

무조건 못하도록 막지마시고 큰 대야를 주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물총을 주거나 플라스틱 음료수병을 잘라 그릇을 만들어 쏟아 담았다 해보기도 하고, 한 사이다병은 높은 곳에 구멍을, 다른 병은 낮은 곳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어디까지 나가나 관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 우유곽 분수 놀이

우유곽에 여러개의 구멍을 뚫어 샤워기처럼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 배만들기

1리터 우유를 똑바로 세워서 길게 반을 가르면 배 2개가 나온다.

● 물 페인트 칠하기

현관문틀에 물을 담아 콘크리트 바닥이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깡통의 물을 페인트로 생각하고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에 그림을 그린다. 벽돌이나 콘크리트에 물이 닿으면 잠시 동안 색이 조금 진해져 그림이 남아 있게 된다. 물기가 마른 후 다시 칠할 수 있기 때문에 흥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 스폰지로 물 옮기기

쟁반에 입구가 넓고 큰 그릇을 두개 준비합니다. 한쪽 그릇에 담긴 물을 스폰지를 이용하여 다른 그릇에 옮깁니다. 스폰지가 물을 받아들이면 위로 들어 올려 빈그릇에 가져와 두 손으로 짜서 넣게 합니다. 다 옮긴 후에는 물을 버리고, 흘린 물을 스폰지로 닦도록 합니다.

※ 방학 동안 연락처

선생님들 교사 주소 및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모님들간의 연락처를 알고 계셔서 방학동안 연락하고 지내세요

* 연락처:

*

*

1992년 고시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1)

조선경 (아동교육 연구부)

차례

- Ⅰ. 들어가는 말
- Ⅱ.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 건강 / ○ 사회
- 표현 / ○ 언어
- 탐구
- Ⅲ. 맺음말

올바른 교육관과 철학의 정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은 '아동교육연구'란을 신설합니다. 이 난은 「아동교육연구부」에서 주로 맡게 될 것이며, 그 첫 내용으로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을 2회에 걸쳐 실습니다. (편집자 주)

I. 들어가는 말

정부수립 후 크게 다섯차례 유치원 교육과정의 개정이 있어왔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기본 지침서라고 할 정부의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치원에서는 실제 교육과 무관한 형식적, 선언적 문서로 받아들이고 덮어두었으며, 우리 탁아소에서는 정부의 교육방침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 인해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려고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유아를 교육하고자 할 때 과연 무엇을 어떻게 아동의 수준에 맞게 교육할 것인가

가 하는 문제는 언제나 가장 큰 고민의 주제였고 그것을 일반적 수준에서나마 연구해서 제시한 자료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다는 점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1992년에 이미 고시해서 1995년부터 시행될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에 담긴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교사
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우선 유아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또 영역별 내용은 무엇이며 내용을 채우기 위해 수준별로 제시된 세부적 목표는 무엇인지를 기술하려고 한다. 다소 딱딱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열린 눈으로 보면 실제 탁아소에서 적용할 수 있는 풍부한 자료가 될 수 있음을 믿는다. 교사가 조금만 교육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탁아소의 일상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교육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II. 제5차 유치원 교육과정

이번에 개정된 교육과정의 큰 특징은 기존의 발달영역별(신체, 언어, 인지, 정서, 사회 발달) 구분에서 생활 영역별 구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생활영역에는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다섯가지가 있고 이를 커다란 틀로 해서 내용을 제시한다.

또다른 특징은 기존에는 목표수준만을 제시했을 뿐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는데 이 교육과정에서는 새롭게 교육내용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유아교육 현장에서 교육계획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내용 중 수준을 1수준과 2수준으로 한 것은 유아의 능력이나 나이보다는 개인적인 발달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심하고 그것이 차이이지 우열을 가릴만한 것이 아니라
고 한다면 '00이는 5세니까 2수준 정도는 해야하는데 못하니까 어디가 모자란가 보
구나.'하는 식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써서는 안된다.

또한 1수준과 2수준 사이를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두 수준 간에 명확한 구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임을 알려준다.

1. 교육과정의 목표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인간상은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적인 사람이다.

2. 교육과정의 기본방향

1) 기본생활 교육의 강조

- 어린이의 기본생활 습관형성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다.
- 기본생활 습관을 다시 예절, 질서, 절제, 청결로 구분한다.

2) 유아의 흥미와 개별성의 존중

- 사물이나 사건이 유아들에게 의미를 줄 때 유아들은 무엇인가를 배우려는 욕망, 즉 동기를 갖게 된다. 또 유아의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하고 교육경험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며, 선택의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흥미영역'의 마련이다.

3) 놀이중심의 교육

- 놀이는 유아가 새로운 영역을 탐색해 가며 그들의 이해를 넓혀나가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이해하고 배워나가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또한 놀이를 통해 정서적 안정과 만족도 얻는다.

4) 유아의 전인 발달 강조

- 유아의 건강, 사회적 관계, 정서 및 창의적 표현, 언어, 사고능력 등이 생활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발달하도록 돕는다. 근래의 인지적 발달만을 선호하는 분위기는 지양되어야 한다.

3. 생활 영역별 교육목표와 내용

1)건강생활

'건강 생활'은 다양한 신체활동과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통하여 유아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한 영역이다.

<이 영역의 목표는>

1. 기본적인 감각 운동과 신체조절 능력을 기르게 한다.
2. 건강 생활 습관을 가지게 한다.
3. 안전 생활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방법을 익히게 한다.

< 내용 >

	1 수 준	2 수 준
<감각 운동과 신체 조절> 1. 감각을 통해 사물의 차이 식별하기	. 다양한 사물을 주의깊게 본다. . 여러가지 소리를 들어본다. . 사물을 만져보고 느낌을 표현한다. . 여러가지 맛을 보고 차이를 알아본다. (냄새도 동일)	. 다양한 사물을 보고 식별하여 성질과 기능을 알아본다. . 소리를 듣고 식별하여 성질과 기능을 알아본다.
2. 감각기관을 협응하여 활동하기	. 두가지 감각을 활용하여 사물을 다루어 본다.	. 여러가지 감각을 활용하여 사물을 다루어 보고 주위환경을 인식한다.
3. 신체기관에 대해 관심 가지고 활용하기	. 신체 각 부분의 기능에 관심을 가지고 움직여 본다.	. 몸의 각 부분과 기관을 고르게 활용하여, -
◇ 머리, 몸통, 다리, 팔, 목, 어깨, 가슴, 배, 엉덩이 등의 근육을 움직인다. 몸굴리기, 기어가기, 달리기, 공 던지기, 뛰어내리기,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준비해준다.		
4. 지각과 운동을 협응하여 활동하기	주어진 공간에서 신체의 균형을 바르게 잡는다. . 다양한 위치와 방향으로 움직여 본다.	. 지시된 위치와 방향으로 움직인다.

◇ 1수준에서는 다양한 동작을 격려하고 2수준에서는 교사가 좀더 의도를 가지고 활동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의 시범을 따라하기 보다는 다양

한 동작을 하도록 언어적으로 자극한다는 것이다.		
5. 대근육 활동하기	· 한 장소에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인다. · 공간을 이동하면서 몸을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인다. · 이동하면서 몸을 다양하게 움직여 본다. ·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여 본다.	
◇ 음악을 들으면서 유아가 느끼는 바를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게 하고 좀 더 넓과 다르게 독창적으로 표현해보도록 자극함으로써 창의적 사고의 기초인 발산적 사고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		
6. 소근육 활동하기	· 소근육을 이용한 활동을 경험한다.	· 소근육을 이용한 활동을 능숙하게 한다.
◇ 손, 팔, 목, 눈, 손가락을 상호 협응하면서 소근육을 사용할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소근육 활동에는 정확하고 빠르게 손가락 사용하기, 안정되게 팔과 손 쓰기, 가위로 오리기, 색연필로 끄적이기, 리본매기, 바느질하기, 목공 놀이 등이 있다. 특히 연필을 쥐고 무조건 쓰게하기 보다는 다른 소근육 활동의 기회를 먼저 주어야 한다.		
7. 신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8.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신체 활동하기		
<건강한 생활> 9. 몸을 깨끗이 하기	· 자기 몸을 깨끗이 한다. · 입안과 이를 깨끗이 한다. · 손을 잘 씻는다.	· 스스로 몸을 깨끗이 하려는 습관을 가진다. · 스스로 —는 습관을 가진다 —
◇ 1수준에서는 그때그때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지만 점차로 문에 익혀 스스로 실천하도록 한다.		
10. 주변환경 깨끗이 하기	· 자기 주변을 깨끗이 한다.	· 집과 주변을 깨끗이 한다.
11. 규칙적인 생활하기		
12. 적절히 휴식하기		
· 활동적인 놀이 후에 휴식을 취한다.		

13. 옷을 바르기 입기	옷을 혼자서 바르게 입는다.	옷을 상황과 계절에 알맞게 입는다.
◇ 놀이할 때는 편한 옷을 입는 등 상황에 알맞는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다.		
14. 올바른 식생활 하기	- 알맞은 양의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 몸에 이로운 음식과 해로운 음식을 구별한다. - 몸에 해로운 음식은 스스로 주의한다. - 음식은 제자리에 앉아서 먹는다. 예절바르게 먹는다.	
15. 질병 예방하기	건강에 해로운 것에 대해 알아 본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고 실천한다.
<안전한 생활> 16. 놀이감, 기구,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 놀이감과 기구의 안전한 사용법에 대해 알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네 주위, 미끄럼틀 아래, 자전거 길 주변 등 주의해야 할 것에 대해 약속을 함께 정해보고 이를 상기시켜 준다.		
17. 교통기관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 규칙 준수하기	- 교통기관을 안전하고 예절바르게 이용한다. - 교통 안전 규칙을 알아본다.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 전차, 버스 등 교통기관을 이용할 때 뛰어다니지 않기, 조용히 하기 등		
18. 사고, 위험한 상황 파악하기		
19. 사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한다.	사고나 위험에 대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대처한다.
◇ 주막, 화재, 유괴, 교통사고 등의 위험한 일이나 장소가 있음을 알고 주의하도록 한다. 실제로 사고가 났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선생님이나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기, 비상 전화번호 익히기 등 대처하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실천하도록 한다.		

2) 사회생활

최근 우리사회는 급격한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 도덕성 상실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도덕성은 원래 '나' 뿐 아니라 '남'의 소중함을 생각할 줄 아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자존의식을 바탕으로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나타난다.

'사회생활'은 기본 생활 습관을 기르고, 집단 생활에 적응하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하며 남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익혀 스스로 절제하고 책임지는 민주시민의 가본 자질을 육성하기 위한 영역이다.

<이 영역의 목표는 >

1.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2.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3. 다른 사람과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게 한다.
4.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며,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

<내용>

	1 수 준	2 수 준
<기본 생활 습관> 1. 예절바르게 생활하기	· 부모님과 집안 어른께 존대말을 사용한다. · 부모님과 집안 어른께 인사한다. · 도움을 받았을 때, 고마움을 말로 표현한다.	· 대상에 따라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한다. · 대상과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인사한다. · 도움을 받았을 때, 실수했거나 잘못했을 때에 적절한 말로 표현한다. · 어른께 공손히 대한다.
◇ 1수준에서의 예절 생활은 가까운 이웃, 친척 어른들과 대화할 때 존대말의 사용과 기본적인 인사예절을, 2수준에서는 언어예절과 인사예절에서 다양한 상		

항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2. 질서를 지켜 행동하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의 하루일과를 알아본다. · 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을 알아 본다. · 여러사람이 기다려야 하는 곳에서는 차례를 지킬 줄 안다. · 함께 생활하면서 지켜야 할 약속을 알아본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에서의 하루일과를 알아보고 지킨다. · 집에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알고 지킨다. · 기다려야 할 때와 장소를 알아보고 차례를 지킨다. · 때와 장소에 따라 필요한 약속을 정해보고 지킨다. · 여럿이 결정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함을 안다. |
|---|---|

3. 감정과 욕구 절제하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화나게 하는 행동을 알아본다. · 마음대로 하면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내가 사용하는 물건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떻게 아껴쓸 수 있는지 알아본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아보고 지킨다. · 하고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알고 조절한다. · 물건에 따라 아껴쓰는 방법을 알아보고, 자발적으로 아껴 쓴다. |
|--|---|

◇ 1수준에서는 내가 갖고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등을 말해보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2수준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를 도와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다.

4.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에 대해서 알아본다.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안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소중함을 안다. · 나와 다른 사람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본다. ·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한다. |
|--|--|

◇ 1수준에서는 혼자 옷 입고 벗기, 신 신고 벗기, 화장실 사용하기, 손씻기, 코 풀기, 정리 정돈하기, 자기 물건 간수하기와 같은 자신을 보살피는 기술을 익히고 2수준에서는 위와 같은 것들이 생활 습관화되도록 한다.

5. 자기 일을 계획하고 완수하기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해 본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에 옮긴다. |
|--|--|

		계획대로 행동했는지 알아 본다.
◇ 1수준에서는 하고싶은 일을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계획'의 기초적인 경험을 해보고 2수준에서는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익히도록 한다.		
6. 상황에 알맞게 감정과 행동 조절하기	자신의 감정을 행동보다 말로 표현한다. 참아야 할 때가 있음을 안다.	-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상황에 알맞게 조절하여 표현. - 참아야 할 때, 인내심을 가지고 잘 참는다.
◇ 1수준에서는 기쁨, 슬픔, 화와 같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며 이러한 감정은 경우에 따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 2수준에서는 자신의 요구가 거부당했을 때라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을 갖도록 한다.(예: "나도 같이 쓸 수 있니?" "나도 함께 할 수 있니?" "나하고 같이 놀래?")		
7. 가족의 구조 알기	가족의 구성원을 안다.	다양한 가족 구조가 있음을 안다.
8. 가족의 역할 알기	- 가족의 하는 일을 안다. - 집에서 내가 할 일을 알고 한다 - 가족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안다.	- 가족의 역할과 기능을 안다. - 가족의 역할은 다르지만, 똑같이 중요함을 안다. - 가족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을 알고 한다.
9. 가정의 기능 알기	우리집에 대해 안다.	우리집의 위치를 알고 가정의 기능을 안다.
10.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알기	- 다른 사람이 있음을 안다. -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안다.	- 다른 사람도 소중함을 안다. - 다른 사람에게 방해되거나 폐가 되지 않게 행동한다. - 다른 사람이 없으면 쓸쓸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안다.
11.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기	다른 사람도 의견이 있음을 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의논

	- 내 물건과 다른 사람의 물건을 구별해 본다. - 놀이감을 나누어 써야 함을 안다.	- 하며 사이좋게 지낸다. - 다른 사람의 물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음을 안다 - 스스로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다.
12. 집단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여러 사람이 하는 일에 참여해 본다.	여러사람이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13. 협동하여 문제 해결하기		
14. 주변 지역에 관심 가지기		
15. 공공 규칙을 이해하고 지키기		
16. 직업에 관심 가지기		- 가족 또는 친구가족의 직업에 대해 알아본다. - 직업에 성차가 없음을 안다 - 모든 직업은 똑같이 중요함을 안다.
17. 경제 생활에 관심 가지기	- 필요한 물건을 소유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 물건을 아껴쓰는 방법을 알아 본다. -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알아 본다.	- 물건을 다양한 방법으로 아껴 쓴다. - 물건을 계획해서 사도록 한다 - 다시 쓸 수 있는 물건을 알아보고 재활용한다. - 물, 전기 등을 아껴쓴다.
18. 주변환경 보전하기	- 더러운 장소를 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본다 -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분리하여 버린다.	
19. 우리나라의 상징과 전통놀이 경험하기 ◇ 우리나라의 이름, 태극기의 모양과 이름을 알게되며, 설날, 추석 등의 명절을 경험하고, 윷놀이, 탈춤, 연날리기, 팽이 돌리기 등의 전통놀이를 해 볼 기회를 갖는다.		

20. 북한에 대해 관심 가지기

북한 사람은 우리와 같은 민족임을 안다.

◇ 1수준에서는 아직 낯당상 맞지 않는다고 여겨 내용이 없으며 2수준에서는 민족 동질성을 인식하게 한다. 통일문제에 대한 교육내용이 너무 미흡한 수준이다.

21. 다른 나라에 대해 관심 가지기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은 다음 호에 계속)

자라는 아이, 건강한 교사 / 여름철 물놀이

물은 아이들이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놀이감중의 하나다. 형태가 주어지지 않고 투명하며, 독특한 감촉을 가진 물. 물은 특별한 놀이감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다.

물을 여러가지 크기의 그릇에 담았다가 다른 그릇에 담는 놀이는 양의 개념을 올바르게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물의 성질, 즉 투명함 유동성 수압 증발등을 알게 된다. 물에 뜨는 물체와 뜨지 않는 물체를 구분할 수도 있게 되며, 물에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것도 알게 된다.

이러한 놀이 과정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은 어느새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물놀이가 갖는 또다른 의미는 정서적 안정감을 들 수 있다.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물과 친했던 아이들은 물속에서 노는 것을 즐긴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때 끈한 감촉때문에도 불안이나 긴장이 해소되는 것이다.

더운 여름에 아이들이 물을 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자 바깥 마당이 있다면 큰 대야에 물을 담아 여러 물건들을 제공하여 놀 수 있게 해주고, 만약 전혀 여의치가 않다면 씻기는 시간은 넉넉히 잡아 한정된 시간이나 물놀이를 할 수 있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듯하다. 옷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젖은 옷대신 갈아 입을 옷을 제공한다. (여러가지 물놀이 방법은 아동교육란 참고)

활동총괄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교육’ 아동관 토론회 열려

제 6회 아동관토론회가 다른 민간탁아소와 소속 회원 회원 등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6월 16일 (수) 오후 6시부터 3시간 30동안 본 회 교육실에서 있었다.

교육연구부에서 주최한 이번 아동관 토론회는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이라는 주제로 통일의 절박함과 통일이 우리의 과제임을 인식하고, 통일세대가 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통일교육을 할 것인가를 함께 찾아나가는 자리였다.

통일 노래 ‘새 아침’ 배우기 (진행: 나은미, 동부 오손도손 어린이집)로 시작한 토론회는 총2부로 진행되었다.

1부는 ‘탁아교사를 위한 통일강연회’로 김남식 선생 (평화연구원)의 힘찬 강의를 들었다. 분단의 문제는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어떤 이념이나 체제보다 우선 하는 과제로 민족적인 견지에서 풀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현 국제정세와 국내정세를 풍부히 설명해 나가면서 현재 통일의 가능성이 많은 때이고, 남북이 합의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작업이 통일을 앞당기는데 중요한 내용임으로 정확히 남북 합의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실현을 위한 실천을 당부하였다.

2부는 연구부에서 준비한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어떻게 ‘통일세대를 위한 통일교육’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박성연 연구부장 (교육연구부) 발제로 시작했다. 앞 1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아동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진행했는데 교사가 몸에 밴 조국과 통일에 대한 열정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교육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통일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갖도록해야한다는 것, 민족동질성 의식을 길러내고 북한을 바로 이해하며, 통일의 문제는 외세가 아닌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간다는 자주성의 의식을 길러내는 것, 생활에서 민주적인 소양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내는 것이 통일교육의 전제이자 목표임을 합의하고 실제 교육에 있어 형식적인 교육과 비형식적인 교육 모든 방법을 통해 해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제껏 탁아소에서 해 왔던 교육 실제 사례를 모아 제시했다. 이야기 나누기 자료 <철조망이 없어진다면>를 준비한 김실이 선생 (안산 진달래 동산) 의 발표는 교육실제를 풍부히 하는것은 우리교사의 과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1부 강의가 너무 길어짐으로 인해 2부 내용을 풍부히 하기에 시간이 너무 부족했고, 토론할 기회가 없었음이 아쉬움으로 남았다.

앞 강의내용에 현 우리의 통일실천과제를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은 수련회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교육실제는 현장에서 많이 개발하여 중앙 아동분과를 중심으로 모아서 하반기에 교육실제가 풍부하게 포함된 자료집을 연구부에서 낼 때 함께 하기로 했다.

탁아소별곡

‘진달래동산’의 통일 교육 일지

김실이 (안산 진달래동산)

6월 21일 (월) (2주간의 계획된 통일교육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남희 선생님이 ‘철조망이 없다면’ 담화 자료로 전쟁과 분단에 대한 수업을 한 후 점심을 먹으며 뿌듯한 듯 말하셨다. “애들이 너무너무 진지한 거 있지.” 어려울 것이라 예상했던 내용이 아이들의 순수한 감성에 전해졌나 보다. 그래, 역시 아이들의 능력은 놀랍다.

6월 22일 (화)

영미 선생님, 마침 최근에 죽은 금붕어를 이용, ‘작은 연못’ 노래를 가사까지 소화시켜가며 훌륭하게 가르치심. ‘싸움’, ‘화해’ 어쩌면 이런 주제는 아이들의 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심상치않은 (?) 음성과 선생님의 절실한(?) 태도가 아이들을 매료시킨 원인이 되었지 싶다. 이후 관희가 작업시간에 만든 부채에 연못과 붕어를 그리는 등 아이들의 열렬한 반응이 확인되었다.

6월 23일 (수)

통일에 관한 조작놀이 자료를 만드시려던 은애 선생님이 며칠전 낮잠 시간에 말하셨다.

“아유, 잘 안되더라”

“그래도 가져가서 하자, 언니”

“도저히 안돼 ” (약간의 웃음과 함께)

그러더니 시내서점을 뒤졌을 때도 못찾았던, 우리나라 8도 맞추기 퍼즐을 어디선가 구해오셨다. 확실히 통일이란 주제가 여러 영역에서 녹아들게 하기란 힘이 든다. 나와 있는 자료들도 없고... 뭐 목마른 우리가 샘을 파는 수밖에..

어떤 자유놀이 시간

문수(6세, 남) : “미국도 나쁜놈이야”

(이 ‘도’에는 일본이 나쁜놈이란 전제가 깔려 있다.)

선생님: 너 어디서 그런 소리 들었니? (빠른 교육의 효과를 보는 기쁨만, 앞으로 집이나 학교에서 이런 말을 하면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반으로)

영훈 (6세, 남) : 텔레비에서 들었나봐요.

선생님 : 아이구 행여나--

그러면서 실감했다. 우리는 진실을 말했는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는 교육이 무책임한 것이 되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했나. 적어도 아이의 집에서 만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지도록 충실한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8월에 있는 우리지역 통일 행사에 아이들 엄마,아빠들이랑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7월 1일 (목)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놓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애들아, 이게 뭐니?”

윤모 (4세, 남) : “지도예요, 우리나라 지도예요.”

아이구, 똑똑한 것!

두팀으로 나누어 두개의 지도에 꽃붙이기를 한 아이들은, 예쁜 우리나라를 보고 좋아서 이기고 지는 것에 별 신경을 안썼다.

“이렇게 하나인 예쁜 우리나라를 꼭 꼭 새겨두어라, 애들아. 너희들은 빨강 파랑의 반쪽자리 반공포스터를 그려서는 안된다.”

어떤 자유놀이 시간

문수가 보자기를 쓰고 볼력을 휘두르며 뛰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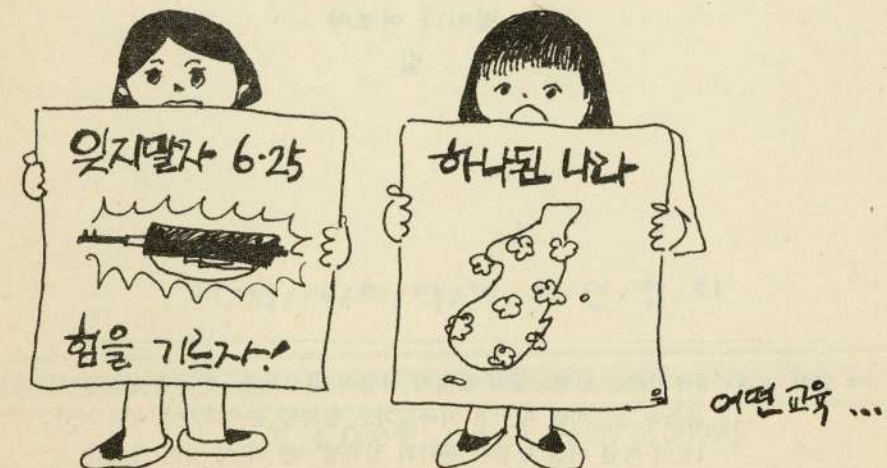
선생님: “문수야, 너 --땀도 전쟁하는 거다. 그리고 다 미국사람이야.”

문수: “미국이라도 좋아요, 멋있어요” 그리고는 꾹싸게 선생님을 피해갔다.

손씻는 시간

세원이 (5세, 남) 의 구슬픈 울음소리에 다가갔다. 왜 우냐는 선생님의 질문에 세원은 불쌍한 척 하며 “애가 물 튀겼어요.” 선생님은 화가나서 “네가 재한테 직접 하지 말라고 말해.”라고 소리를 뻑 질러버렸다. 이게 아닌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는 쉽게 길러지지 않는다.

그래, 뭐 너희들 나이엔 어차피 생활교육이다. 단칼에 모든 교육이 되리라고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이번에 몰아서 통일교육을 하면서 교사들간의 의지도 확인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자료에 맞춰 실질적인 교육안을 만들어 보았다. 어찌 어찌하여 농촌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의 교육활동을 통해 채워지리라 믿는다. 이주간 스트레스(?)를 받고나니, 내가 생활속의 통일교육을 좀더 잘해 낼 수 있는 교사가 된 느낌이다.



글마당

빛이다 여보야

윤주민

빛이다 여보야
지하방 틈새로 찾아드는 빛이다
뜨은 신촌
시들은 꽃잎으로 스미어
봉창에 기댄 채 새우잠 잔 벚꽃머리
새벽 잠 깨워 두번 잔 흔적이
눈꼽도 못뵈는 동공에 차 온다
황급히 쫓기운 스타킹 포장 잔해와
널려진 옷가지
뒤틀린 밥상보
그래, 아침이나 먹었는가 여보야
빨아대는 담배연기 모양도 투명한
빛이다 여보야
쥐구멍에 별들듯이 빛이다
노동하는 모두에게 도둑처럼 다가올
어둔 만치 화안한 빛이다
빛이다 여보야
빛

* 필자 소개: 윤주민씨는 인천노동자 문학회 시창작 반장으로 '우리네 방앗간'의 물품을 운송하여 지탁연 가족들과도 친숙한 분이다. 이 시는 지난 4월에 펴낸 인천 노동자 문학회 창작집 '큰 터'에 실린 것이다.

3-4세를 위한 교육활동 자료집

구로지역위원회 아동분과
얼사랑 모임 / 공동 편저

- ① 담화
- 미술 활동
- ① 동시
- 음률 활동
- ① 율동
- 손유희
- ① 전래동요
- 노래 동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회원 4,000원 / 외부 판매 5,000원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여성통일마라톤대회 열려

지난 6월 20일(일) 오후 2시부터 여성 통일마라톤대회가 서울 아현국민학교에서 열렸다. 한국 여성단체연합회, 기독교 여민회가 공동 주최한 이 행사는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당일 마라톤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는데 아현 국민학교를 출발, 아현 로타리, 이화여대를 돌아 다시 아현국민학교로 돌아오게 되었다. 특히 가족단위의 마라톤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장애물 경주'가 있어 통일에 대한 각자의 결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본 회에서는 남미영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 '사회복지 부문 신경제 5개년 계획' 발표 후 대책 논의

보건사회부는 최근 '사회복지증진부문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신경제계획위원회 (위원장 김영태 경제기획원 차관)에 상정, 의결했다.

오는 '97년까지 향후 5년간 보사부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추진해나갈 이 정책지침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한 전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이 운영할 수 있었던 유료복지시설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도 허용, 경제적 부담능력이 있

는 계층에 대해서는 민간 참여에 의한 복지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유휴인력 활용을 위한 영유아보육시설 확충을 이 계획 기간 중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의 하나로 놓고 있음을 살펴볼 때 탁아문제에 대한 그간의 제기를 일정정도 담고자 한 흔적이 보인다.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것은 1) 직장보육시설 확충 2) 국공립보육시설 및 비영리 법인 운영보육시설 확충 3) 민간보육시설 확충 4)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의 계획이다.

보사부는 여성의 취업을 권장한다는 뜻에서 현재 여성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의무화된 보육시설을 300인 이상으로 '95년까지 확대 추진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장에는 '97년까지 부담금부과 등 제재를 가하거나 보육비용을 수당으로 지급토록 하는 등 보완대책을 강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올해내에 민간보육시설의 영유아 1인당 시설면적, 보육실 기준 면적 및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아동수 등 보육시설의 시설 및 종사자 기준을 완화, 조정하고 보육비용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거 결정될 수 있도록 96년부터 자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증진 부문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대한 본 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으나 대표자회의 등에서 중요한건으로 채택하여 논의중에 있으며 오는 하계수련회에서 이 계획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이후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계획의 주요사안이 현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인 97년도에나 완료, 정리되는 사업으로 짜여져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보육비용을 시장

경제원리에 따라 자율화시키는 것 등은 본 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보육시설의 공공성'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에대한 문제제기가 예상된다.

- 보사부, '올바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서'에 대한 답변 공문 보내와

보사부는 본 회에서 제출한 '올바른 보육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서'(5월 21일자)에 대한 답변을 6월 21일자로 보내왔다.

보사부는 본 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보육사업 수행에 적극 참고하겠다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본 회에서 '93년도 보육사업 지침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 다음 >

질의 1> 1991년 9월말 가정보육시설이 2,006개소인데 반해 1992년 8월말 현재 1,876개소로 집계 발표된 자료를 들어 가정보육시설의 숫적 감소 현상의 원인과 이에 대한 대안 및 중,대규모의 보육시설 위주의 정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 가정보육시설의 범위를 종전 아동복지법에서는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91년 1월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 운영중인 동 시설 중 영유아 11인이상인 경우 민간보육시설로 전환됨에 따라 가정보육시설의 숫적 감소가 있었다.

*** 정부에서는 소규모 보육시설의 확충 유도를 위하여**

- 30인 미만 시설에는 보육교사의 시설장 겸용 허용, 보육실 이전의 부대시

설 중 사무실, 양호실 설치를 배제토록 하고

-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단독 및 공동주택에서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 또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토록하고,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할 경우에는 보육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질의 2> 지난해 보육사업지침에는 71개소 공단지역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이 있었던 데 반해 올해 보육사업지침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확충계획이 없다. 현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지역과 시설수, 아동보육현황에 대하여,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활성화,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 '93년 3월말 현재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현황은 28개 사업장에서 시설을 설치하여 877명의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5개 사업장에서 시설 설치에 가깝하여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 정부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 상시여성근로자 500인이상 사업장에는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육대상 아동수가 적거나, 유해 환경으로 인하여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동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 상시 여성근로자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는 노,사간 자율적 합의에 의한 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을 지급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 사업주의 시설 설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0 시설 설치에 투자한 투자액의 1

0%를 세액에서 공제토록하고

0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적은 경비로 인정하여 손비처리해 주고 있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또한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활용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 시 노.사간 합의에 의한 자발적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질의 3> 보육시설로 신고, 인가되지 않은 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데 대한 보사부의 계획과 이미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입소대상 아동의 모집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는지와 신축 계획 수립시 사전조사작업을 거쳐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 91.1월에 영유아보육법 제정, 시행으로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자 하는 자는 동법에 의한 인가(신고)를 득한 후 운영하여야 하므로 미인가 (신고) 시설에서 보육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 정부지원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하여는 저소득층 보육대상 아동을 포함한 보육수요와 기존의 시설설치현황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지역을 선정토록 하고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등으로 시설 신축에 따른 제반 문제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설 신축에 따른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예산 구조와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 이해찬 의원 특별 강연회 참석

사회복지예산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하 사대위)는 1박 2일간 간부수련회를 예정하였다. 그러나 소속 단체들 상황상 개최가 어려움에 간부수련회를 대신하여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다. 6월 26일 (토)에 있었던 강연회는 '정부예산 구조와 사회복지예산 확보 방안(이해찬 민주당 의원)'의 주제로 약 2시간가량의 강의와 질의응답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본 회에서는 본 회 회장을 비롯 6명이 참석하였다.

-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에 참석

본 회의 회장을 비롯 7명은 숭실대 기독교 사회연구소 주최로 열린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 모임'에 참여하였다. 전국의 관련 단체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이번 연구모임은 "사회발전과 지자체" 주제로 6월 28일-30 (월-수, 2박 3일) 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쟁점 연구로는 「지방자치제와 사회발전 (조희연,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 「지방자치제와 사회발전 (백옥인, 서울대학교 사회학 강사)」, 「지방자치제와 주민복지 (임성일, 지방행정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진행되었다. 토론자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단체연합, 전국농민연합, 인천, 부천, 관악구등 의회 시.구의원, 부천 YMCA 등이 참여하였다. 본 회에서는 인천시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의 지방재정 확보사례를 발표하였다.

- 성폭력특별법 줄속처리 규탄대회 열려

지난 7월 2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폭력특별법 줄속처리 규탄대회'가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특별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렸다.

여성 운동계에서는 우리사회에 반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점차 흉폭해지고 다양한 양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성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함을 끊임없이 주장하고 '성폭력특별법'을 자체적으로 국회에 청원하였다.

그러나 최근 입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시안)」'에 따르면 그동안 여성계에서 주장해온 핵심적인 내용이 거의 반영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성폭력대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성폭력대책활동을 벌여온 기존 민간단체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조항이 들어가 있는것이다.

이에 여성계에서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기 위한 규탄대회와 홍보선전 작업을 실시 하게된 것이다. 여성계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친고죄 폐지 / 2. 성폭력범죄중 비동의간음죄(선적자기결정침해의 죄)와 성협오행위를 보완, 규제 / 3. 경찰과 검찰에서 겪어야하는 피해자의 제2, 제3의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없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가 보완, 확충되어야 / 4. 성폭력상담소와 쉼터등 피해자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지원,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격리치료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확충하여야 / 5. 성폭력특별법의 시

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성폭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추방을 위한 문화제 열려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폭력 특별법 제정 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올바른 성폭력특별법 제정과 성폭력 추방을 위한 문화제'가 약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올바른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함을 널리 알리고자 열린 문화제는 노래패 새하늘 새땅의 노래, 상품화된 성, 남자들의 왜곡된 성의 사고등을 보여주는 슬라이드 상영, 노래공연, 촛극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직접 손쉽게 쓸 수 있는 호신술의 시범을 보여주어 열띤 호응을 얻었다. 문화제는 7월 10일 (토) 오후 3시에 있었다.

- "7월 7일에 TV를 끄시다" 공동 캠페인에 참여

지난 4월 뽀뽀뽀 프로그램 축소에 대한 시청자 항의 운동으로 '뽀뽀뽀 평일 방송 되찾기 운동'에 본 회도 참가하여 전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방송3사 봄철 프로그램 개편 이후 TV방송은 어린이 프로그램 축소 문제만이 아닌 모든 프로그램에 시청률 경쟁에 의한 프로그램 획일화와 저급한 오락화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6월 25일 <TV방송,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서울 YMCA주최로 현 TV방송을 진단해 보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현 TV방송의 상업화, 저질화의 문제는 정권의 언론 정책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 즉 정치문제의 방송은 규제하고 오락적인 부분은 최대한 허

융합으로서 국민들을 우민화 시키는 정책과 방송사 사주들에게 금융특혜 등을 주고 기업화 시킴으로서 정권과 결탁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 나타나는 문제로 바라보고, 이에 대한 해결은 정치권력의 방송매체에 대한 인식의 대 전환과 방송정책에 대한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TV 방송사가 시청률 우선 정책이라는 방송이념을 폐기하지 않는 이상 좋은 방송이 나올 수 없기에 정치권력의 방송정책과 방송사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시청자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이 토론회 이후 서울 YMCA 주도하에 현 TV방송의 심각성을 여론화하여 시청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운동을 이끌어낸다는 목적하에 먼저 방송3사의 '시청률 지상주의'가 가져온 프로그램의 획일화, 오락화, 저질화에 대한 항의로 <'93 텔레비전 방송 이대로는 안된다 시청자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7월7일에 TV를 끄시다> 공동캠페인 활동을 하기로 하였다. 대책회의에는 42개 시민단체로 구성하였다. 이에 본회는 적극적인 결합은 어렵더라도 우리 회원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을 하기로 하고 7월 7일 TV안보기 운동의 내용이 담긴 선전물을 각 탁아소에서 나눠보고 7월 7일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날의 TV안보기 운동결과 당일 시청률이 5% 낮아졌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다.

-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 '여름 합숙' 열릴 예정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주최로 '93 여름 합숙을 오는 7월 19-20일 (월-화, 1박 2일)에 경기도 능내에서 갖는다.

올해로 두번째 맞는 여름 합숙은 서울경인지역 소재 탁아소 자원활동을 하

고 있는 16개 대학에서 30여명의 대표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합숙의 일정은 1) 아동교육실제 사례 발표회: 아동발달심리, 문제 행동사례 고찰 등의 내용을 주요로 하는 기초발제와 노래와 율동, 신체놀이, 공작, 담화 등의 교육실제에 대한 각 학교의 발표로 구성된다. 2) 탁아정책의 흐름과 현안 및 외국사례 연구 3) 상반기 탁아소 자원활동의 사례발표와 평가 4) 공동체 놀이 등이다. 합숙의 준비를 위해 지난 6월 7일, 20일 두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졌다.

- '직장탁아소 설치 사례 발표회' 열릴 예정

오는 7월 21일 (수), 「직장탁아소 추진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 주최로 '직장탁아소 설치 사례 발표회'가 열린다.

연대모임은 병원노련, 금융노련, 화학연맹, 금속연맹, 전교조, 한여노협으로 구성된 기구로 이번 발표회는 직장탁아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설치를 촉진키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발표회는 강남성모병원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이다.



7월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에 각 지역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사 시설에 갈 때에는 '함께 가는 길 7월호'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위원 회 소식

북부

6월 15일 정기회의에서 햇님어린이집과 햇살어린이집의 정회원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부

- 단오맞이 어려운 이웃돕기 주민 노래 한마당 개최

금호, 행당동지역에서 단오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돕기 주민노래 한마당'을 매년 개최하는데 올해 행사는 6월20일(일)에 있었다. 주민노래한마당은 우리의 민속놀이를 즐기고 준비된 음식을 이웃과 나눠먹는 동네잔치이다.

처음에는 지역내 공부방, 어린이집, 독서대여실, 풍물패 등의 단체에서 기금마련을 위해 시작하였다. 햇수를 거듭해가면서, 동네의 어려운 이웃을 돕자는 의견이 있어 이웃돕기 모임을 만들게 되었다. 이제는 각 단체의 대표와 자모, 자부, 동네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이날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은 작년에 500여명에서 올해는 1000명에 달하여 점점 그 열기가 더해지고 있다. 행사가 모두 끝나면 준비주체인 이웃돕기 모임은 월 2회 만남을 가져 행사의 수익금으로 동네의 무의탁노인, 소년소녀 가장을 돕는 활동을 벌인다.

- 성동구 민간보육시설장 간담회 개최

지역위원회에서는 6월 한달동안 성동구에 있는 30여곳의 민간보육시설 어린이집 중 17곳을 전 교사가 방문하여 설문조사 작업을 하였는데 이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6월 30일(수)에 간담회를 가졌다. 준비과정에는 성수, 삼일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참여하여 모임의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이날 모임은 13곳의 어린이집의 참여하였고 '93 보육지침서 교육과 설문조사서 분석 결과 발표,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자유토론시간에는 각기 어린이집의 소개와 운영의 어려움을 서로 나누고 다음 모임을 잡았다. 7월 24일(토) 모임에서는 모임의 임원을 뽑고 모임시약간의 회비를 내는 것을 논의할 예정이다.

- 세입자 대책위 현판식 및 결의대회가 열려

동부지역 오손도손 어린이집이 위치한 「행당동 금호1-6지구 세입자 대책위」는 그간 오손도손어린이집으로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을 사용해왔다. 그런데 지역내 빈 집이 생겨 사무실을 그곳에 설치하고 지난 6월 27일(일)에 현판식 및 결의대회를 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주민 5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다른 철거지역과 철거대책을 위한 여러 단체가 참여하여 우리의 투쟁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결의식을 위해 몇 주일간 밤낮으로 연습한 주민풍물패와 선동대가 전체 행사를 빛내었고 불벌더위에도 모두들 자리를 지켰다. 결의식을 무학여고까지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행진을 하고, 고사와 땃풀이로 끝을 맺었다.

현재는 매주 주민총회와 임원회의, 통 모임을 각각 1회씩 하고 있고 총회전

에 수시로 알림벽보 부착작업과 세대위 사무실을 순번제로 지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조용란 지역대표)

성남

- 민간탁아소들이 함께 한 공동부모 교육 열려

성남 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금)에 '탁아소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공동부모교육'시간을 가졌다. 매년 상반기에 한번씩 하는 공동부모회는 성남 지역위 소속 5개 회원 탁아소 (하늘어린이집, 동방어린이집, 주민탁아선교원, 새날아기마을, 푸른솔애기방)자모들과 교사가 탁아법을 중심으로 탁아문제를 고민, 해결하는 자리이다.

이날의 초청 강사인 김미령씨(현재 마들 사회복지관 총무)는 공동육아의 필요성과 탁아소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강연하였다. 또 자녀양육시 일하는 부모가 가져야 할 자세와 원칙 등, 내 아이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자는 내용 등이다.

이번 공동부모교육은 성남지역위 소속 자모, 교사뿐만 아니라 그동안 성남지역의 15여곳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탁아소를 방문, 그곳의 원장, 교사를 초청해서 같이 한 자리였다. 이러한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들이 있어 이 후를 기약한다. (권금숙 지역대표)

안산

6월 19일 (토) 인근 지역의 민간탁아소 교사를 대상으로 '수.과학 활동'교육을 하였다.

- '안산시 보육정책 간담회' 열려

지난 7월 14일 (수) 오후 2시, 「안산시 보육위원회 소속 민간시설 대표 (이은애 진달래동산 교사 외)」주최로 '안산

시 보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민간보육시설 관계자, 시의원, 가정복지과 2인, 교수, 기자 등 28명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취지 및 경과보고와 "실태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요구사항 정리"의 기초발제,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기초발제의 내용은 총 5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안산지역위원회에서 지난 3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안산시내 민간보육시설 총 22개중 1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른 요구내용이다.

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1) 반일반 탁아소 설치를 인정하는 것 2) 현실적인 표준보육단가의 산출하고 표준보육단가 이하를 받는 시설에 대한 간식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 3) 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것 4)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으로 인한 인가 시설의 축소 방지 대책 마련 5)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 - 시범탁아제도, 시립형 민간시설을 유치, 교사복지 및 처우 개선이다.

답변에 나선 안산시 가정복지과 담당자는 반일반 설치, 표준보육단가 조절 등에 대해서는 행정쇄신위원회에 건의를 해보겠으나 간식비 확대 지원 등은 예산이 없고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하기에는 어려우며 장기저리 대출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어린이집의 용도변경에 관한 공문을 뒤늦게 올 6월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으나 시 차원에서 융통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참석한 시의원은 시의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하며 간식비 지원대상, 규모의 확대를 위해 올 추경 예산에 이를 올리겠다고 하였다.

유승무 교수 (한양대학교 사회학과)는 안산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수성, 평균 임금이 전국치보다 낮고 맞벌

이 부부들이 많으며 이를 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적극적인 지원계획 및 융통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의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민간보육시설 관계자들은 미온적인 시의 대답과 소극적인 검토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안산시 보육시설 연합회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와 9월내에 준비모임을 갖기로 하였으며 지탁연 전국 실태조사에 적극 참여키로 하였다.

(이은애 진달래 동산 교사)

부천

- '부천시 민간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 열릴 예정

부천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주관으로 '부천시 민간보육시설 운영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7월 15일 (목), 3시에 연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시 민간보육시설 원장모임에서 지난 4월부터 부천시내 민간보육시설 20여곳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추진해왔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방재정의 확대와 운영비 지원을 요구할 예정인데시, 구청 관계자 및 시의원과 민간보육시설 관계자 및 교수 (김종해, 성심여대 사회복지학과) 등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수원

6월 9일 축산 시험장으로 공동아외수업을, 6월 30일에는 자연농원 동물원으로 공동 견학을 다녀왔다.

6월 21일 교사재교육 시간에는 인근 지역의 민간탁아소들과의 연대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른 민간탁아소들과 연대할 필요성에 대해 공유하고 구체적인 실천 활동으로 우선 '전국 보육시설 실태조사' 시기를 전후로 한 전체 교사들의 직접 참여를 하기로 하였다.

오산에 위치한 '햇살 아가마을'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6월 30일에 문을 닫았다.

용기종기 어린이집은 지난 6월 22일자모회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사업과 법개정에 관한 교육을 하였다.

대전

- 대전시 여성정책 공개 토론회 열려

대전지역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6일 (토) 오후 3시, YWCA 강당에서 대전.충남여성회 주최로 열린 「대전시 여성정책 공개토론회」에서 「대전의 탁아시설 현황과 탁아정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였다.

발표는 현재 우리나라의 탁아정책과 그에 따른 대전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서 아동별 지원의 문제점, 민간보육시설의 현실을 알리고 보육사업에 대한 사회, 국가적 책임을 법에 명시할 것을 전제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 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탁아부분 토론자로는 대전직할시의회의원 (김성구)이 참여했는데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 충분한 질의, 토론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것은 당일 토론회가 탁아문제 뿐만 아니라 '대전시 여성정책 분석 (임상빈, 한성신학대 교수)', '대전시 여성공무원 현황과 과제 (장하진, 충남대 교수)' 등 3가지 주제를 함께 발

표하였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탁아문제를 내용으로 한 것은 대전지역에서는 처음 있는 자리로써 지역속에서 공개적으로 탁아문제를 제기한 것에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자모, 자부들과 자원활동가 학생들, 다른 민간탁아소 원장들이 참여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발제의 내용에서 대전지역에 대한 정확한 민간보육시설의 현황, 요구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이 준비부족으로 나타났고 이후 대전지역의 자세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과 사후 작업이 우리의 할일로 남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전지역에서 탁아문제를 논의, 시작하고 민간탁아소 연대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 (권오원 지역대표)

전주

- 「여성관련법 제정 운동의 성과와 전망 공개 토론회」 열려

전북여성운동연합 주최로 「여성관련법 제정운동의 성과와 전망 공개토론회」가 지난 7월 10일 (토) 오후2시, 전주 원불교 회관 2층 소강당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주지역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이날 토론회에 본 회회장이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제1부/ 가족법 개정운동의 성과와 남은 문제 (이송희, 가정법률 상담소)
현행 영유아 보육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최현숙, 본 회 회장) 남녀 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의 여성노동관련법 준수 정도와 개정운동의 현황과 전망 (홍기갑, 원광대 교수)

제 2부/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의 현재와 전망 (신봉호, 변호사)

제3부/ 질의 및 종합토론

모임과 모임

<지역대표자회의>

- 서울, 경인지대의

(6/17, 성남, 중부, 인천 불참)

보고사항이 많은 지대의였다. 경실련 주최 '신경제 5개년계획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토론회' 참석건과 서울시 보육위 논의 내용에 대한 보고, 민자당여성국 법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과 이후에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개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지탁연의 참석을 제안 받았음을 보고하였다. 아동권 토론회에 총 37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여성평화의 집'에 7월 31일 날 입주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안전으로 수련회에 대한 준비위의 보고와 내용검토및 보충이 이루어졌는데 체육대회에 대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만 재미있게 진행해보기로 하였으며 수련회비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대표자들의 합의가 있었다.

개특위 활동보고와 하반기 간담회 기획안 및 설문조사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며 연석회의 개최에 대한 제안이 있었다.

민탁연대에 대한 논의는 지난번 지대의에서 논의된 상황을 다시한번 점검하고 지역 진행상황을 보고, 점검하였다.

그리고 신경제5개년계획중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논의는 민간보육시설 활성화를 이유로 보육시설을 시장경제에 맡

기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 계획이며 이에 따른 우리들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져야 하고 특히 민탁연대의 활성화가 보다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지방지대의 (6/22, 마산불참)

군산에서 가졌던 이번 지대의는 매우 푸짐한(?) 회의였다.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한 해뜨는 동산을 방문하고 그동안 안전에 밀려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민자당 여성국 법개정을 위한 간담회 참석과 설문조사를 비롯한 개특위 활동등 중앙의 활동보고와 민탁연대 활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보고가 이루어졌다.

지방지역위원회도 적극적으로 실태조사 작업을 지역사업으로 벌이자는 의견이 있었다. 다음 지방지대의는 7월 20일 (화) 대전에서.

- 서울, 경인 지대의

(7/1, 인천, 구로, 봉천불참)

「기독교 사회발전추진위원회」가 주최한 수련회 참석과 "텔레비전 방송, 이대로는 안됩니다"토론회 참석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고 '7월7일 TV를 끝시다' 캠페인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개특위 활동 보고중에서 연석회의와 설문조사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가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지대의에 보고서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수련회 일정에 대한 점검과 회비를 결정하였는데 회비는 교사들이나 탁아소에 무리가 있겠으나 어려운 재정상황으로 인상이 불가피함을 들어 1인당 3만원으로 결정하였다.

민자당 여성국 법개정소위원회 구성

시 참여여부는 상황과 필요성에 대한 점검속에서 집행부에서 결정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6월 26일날 사대위의 "정부예산 구조와 사회복지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이해찬의원의 교육을 중요내용만 추려서 재교육하였다.

< 아동교육분과 >

- 서울경인지역 아동교육분과

(6/8, 6/22, 7/6)

중심논의 안건은 1) 캠프와 방학통신문에 관한 의견을 모았고, 2)수련회때 아동교육에 관한 교사교육 내용을 정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캠프는 각 지역별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캠프라는 명칭을 바꾸자는 제안이 나와 '여름나들이'로하기로 했다. 여름나들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자연을 충분히 접할 수 있게 한다, 아이들의 활동을 최대한 허용한다, 자기 탁아소를 넘어 폭넓은 공동체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한다'라는 원칙에 기초하여 각 지역과 여름나들이 장소를 고려하여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 했다.

방학 통신문의 경우 단순히 방학이 있다는 것을 부모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 방학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또 방학동안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등을 소개해서 방학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방학 통신문을 만들기로 하고 방학통신문의 예를 소식지에 실기로 했다.

수련회때 이번에도 작년 동계수련회처럼 분반 형식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으로 하기로 하고 내용은 그림지도, 문제행동에 관해, 연령에 맞는 놀이감, 노

래울동 유아체조 배우기로 정했다. 그림 지도와 문제행동은 외부강사를 섭외하기로 하고 놀이감은 교육연구부에서 준비하고 노래와 율동은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에서 유아체조는 지방아동분과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다음모임은 상반기 평가를 하고 하반기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지역 아동교육분과장님들의 적극적인 참가가 요구된다.

- 지방아동분과 (6/30)

지방아동분과 회의가 6월 30일 대전 민주청년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대구지역 분과장은 병가 중이고, 광주지역분과장은 일본연수중이고, 군산지역분과장은 당일 아파서 회의에 참가하지 못해 대전, 부산, 전주선생님과 중앙아동분과장, 교육간사가 모여 회의를 했다.

안건은 1)연구부 주최 통일교육에 관한 세미나, 2)수련회 아동교육프로그램 준비, 3)캠프와 방학통신문에 관한 논의 등이었다.

통일교육 세미나는 미흡하나마 진행되었고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한 통일교육을 수행하기로 했다. 수련회 아동교육프로그램은 서울경인 아동분과에서 준비한 것 외에 지방아동분과에서는 유아체조를 준비하기로 했다. 다른 논의는 서울 경인과 같다.

다음 모임 안건은 수련회 프로그램 준비와 아동분과 상반기 평가를 하기로 했다.

- 영아 탁아소 모임

영아 탁아소 모임이 지난 7월 3일 (토) 오후 3시에 본 회 사무실에서 있었다.

이 모임에는 인천 세쌍둥이 어린이집과 구로 새터 어린이집 등 2곳 탁아소와

남미영 부회장, 오윤정 아동교육간사가 함께 했다.

이번 모임에서는 1) 탁아소내에 있는 교육관련 서류 모으기 2) 식단에 대하여 3) 하루 일과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예상외의 저조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논의된 내용은 불참한 다른 영아 탁아소에 보내기로 하고 다음 모임에 더 많은 탁아소의 참여를 권유하기로 하였다.

다음 모임은 9월 4일(토) 오후 3시에, 영아의 건강과 질병, 예방법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건강 (오윤정 교육간사)과 질병, 예방 (최홍국 세쌍둥이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오기로 하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특별위원회>

- 서울경인 개특위

(6/16, 23, 30, 7/7)

서울경인 개특위는 매주 1회의 모임을 가졌는데 주요 안건은 1) '(가칭) 간담회'의 준비 2) 지역 개특위장과 지역내 민간탁아소 연대주체들과의 연석회의 준비와 진행 및 평가 3)지역내 개특위 관련 사업 보고와 점검 등이다.

* '(가칭) 간담회' 준비

지난 4월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리에서 본 회는 민간탁아소들의 운영실태와 어려운 점을 모으는 자리를 갖기로 한 바 있다. 9월로 잠정 결정된 '간담회'를 위해 개특위는 '탁아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을 지대의에서 위임받아 준비하였다. 개특위와 정책연구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실태조사 준비위원들은 실태조사의 목적과 일정,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

이 나타났는데 이전에 다른 기관에서 탁아소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부분적인 내용들이어서 전체 상황을 알 수 없고 실태조사에 보다 과학성과 객관성을 가지기 위한 방법 등이다.

전국에 분포된 4가지 보육시설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여 설문문항을 준비하였다. 그간의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실태조사의 대상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대 도시로 전국 조사 실시) 국공립,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로 무작위 500개소에 대한 조사

2) 조사방식: 조사원의 방문조사와 회수조사 혼합

3) 조사일정: 7월 마지막주까지 조사

* 지역개특위장과 민간탁아소 연대주체들과의 연석회의

개특위는 지역내 개특위사업과 민간탁아소 연대모임과의 깊은 연관성속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질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의 민간탁아소 연대주체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6월 23일(수)에 약 3시간에 걸쳐 각 지역의 민간탁아소 연대모임의 상황과 현재의 고민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짧은 시간으로 인해 충분한 논의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지역에서의 민간탁아소들과의 만남이 '재정 지원 확보 요구'에 머무르지 않고 나아가 아동교육, 교사교육 전반에 걸친 연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 지방개특위 (7/8)

전주와 군산지역위가 불참한 가운데 열린 7월 지방개특위에서는 1) 실태조사 준비 2) 6월 보사부 자료와 신경제 5개년 계획 중 사회복지 부문 초안 검토 3) 지방개특위 상반기 활동 평가를 하였다.

실태 조사작업에 대해서는 서울, 경인과 일정을 같이하여 문항이 완성되는 대로 7월 마지막 주까지 조사를 완료하고 8월 수련회에서 수합하기로 하였다. 조사에 해당되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지역위는 조사대상 시설에 대한 명단을 입수하기로 하였으며 조사 인원 마련을 위한 작업을 하기로 하였다.

상반기 활동의 평가속에서 지방의 어려운 조건과 상황속에서 지방개특위가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것과 지역개특위장들이 지역내 개특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되었다. 지역 개특위장들의 전문성과 집행력을 담보한 가운데 지방개특위 사업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었다.

다음 지방개특위는 8월 26일(목) 대전에서 있다.

< 아동교육연구부>

교육연구부는 6월 한달 동안 자주 모임을 가졌다. 모임의 내용은 '통일교육' 아동관토론회와 '놀이감 관련 책' 발간 원고 작성이었다.

교사들이 열렬히 참여한 통일교육 아동관토론회를 통해 연구부부원들은 더욱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고, 다음 '공동체 교육'에 관한 토론회는 조선경, 서은희, 남명자 연구부원을 중심으로 더욱 좋은 내용이 나오도록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했다.

'놀이감관련 책' 발간은 초안 검토작업을 했고 7월 15일경 초고를 완료하고 8월에 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7월에 제기된 사업으로 수련회의 아동교육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맞는 놀

이감'이란 주제로 교사 교육이 제기되어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반년을 숨가쁘게 보내면서 연구부에서는 하반기에 부원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한 사업계획이 다시 세워져야 함을 공유하고 상반기평가와 하반기 계획을 다시 면밀히 잡기로 했다.

사람들

* 결혼 :

전주지역위원회 아동교육분과장인 오마리아(금암어린이집)씨가 지난 7월 11일(일)에 결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휴직, 복직

북부지역위원회 동근나라 어린이방은 변임선씨를 6월 17일부터 정교사로 맞이 하였습니다. 변임선씨는 지난 '90년, '91년 기간에 동근나라에서 활동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다가 이번에 다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수원지역위원회 전경숙씨는 6개월의 휴식을 마치고 지난 7월 5일부터 용기종기어린이집에서 다시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더욱 힘찬 활동 하시길.

본 회 지도위원이신 김경태 전 회장(북부지역 어린이 사랑방)은 8월부터 임신 휴직에 들어갑니다. 건강한 아이의 출산을 기원합니다.

* 새로 오신 분들

북부지역위원회는 신입회원 탁아소인 햇님 어린이집의 박금옥(33세), 김희영

(29세)씨를, 햇살 어린이집의 함희영(27세), 김금옥(21세), 김미숙(29세)를 맞이하고 지역위 활동을 같이 합니다.

새로이 회원이 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국의 지탁연 가족 여러분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전주지역 이해숙(일터 어린이집)씨는 「지역사회탁아소의 재정실태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논문은 올 봄에 본 회 소속 50개 지역사회탁아소를 대상으로 재정실태에 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이해숙씨는 저소득층 탁아의 효과는 적절한 물리적 환경, 집단의 크기, 우수한 교사, 적당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으나 교사의 처우 및 근무여건의 개선,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가는 길은
탁아활동의 김잡이역을 맡겠습니다.
함께 가는 길은
지탁연 가족의 얼굴입니다.
함께 만드는 소식을
아껴주시시오.

우리들의 목소리

3일만 알고

백만원 벌었다!

이주영 (수원 용기종기)

오래간만에 걸려온 대학시절 함께 생활했던 친구의 전화!

“잘 지냈니?”

“응, 그래”

어찌구 저찌구-

“너 3일만 나하고 일하고 100만원 벌 어보지 않을까?”

“뭐라구? 백만원?”

그렇다. 나의 여유롭지 못한 경제사정을 뻔히 알고 있는 그 친구의 한마디는 실로 내 심장을 뛰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그녀는 단서를 달았다. 3일간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주변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였다. 그러마하고 했지만 좀 꺼림칙한 것이 영 이상하다고 느낀채 하루가 흘러서야 일주일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다.

요즘 유행하는 피라미드 판매방식의 MLM이다!

혹시나 했던 생각은 점점 짙어가기 시작했다. 며칠간은 자기와 함께 있게 있어야 한다는 것,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걸로 하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걸 단순히 그 친구에게 속아 넘어가는 차원만은 아니었다. 학생시절 많은 동료들에게 신임받고, 인정받고 여유 넘치던 정감있는 그 친구가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서야 하는지 가슴이 덜컥 내려 앉는 것이, 갑자기 사람관계에 대한 아득함이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어떻게든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친구를 우선 확인하자는 심산에 두번째 제의를 받아들였다. 놀이방을 하루 쉬고서 아침 8시 선릉역으로 - 장소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곳과 비슷하다. 선릉역 또는 삼성역 등- 나가봤더니 역시 그 친구는 그 모습에 완벽한 믿음과 복종으로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여유있고 느긋했던 생활은 없어지고 산만하고 바빠 서두르는 모습이 무엇에 쫓기는 듯했다.

돌아서는 나에게도 또 왜 그리 차가웠던지.. 시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전화를 돌렸다. 그 친구가 연락할 만한 친구들에게 혹여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면 절대로 약속하지 말고 먼저 연락한 다음 함께 만나자고.. 가슴아픈 일이었지만 어쩔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친구나 선배들은 그 친구를 인간적으로 믿는다는 그것 하나로 직접 가서 보고 왔던 것이다. 그 친구를 미워하고 실망하기엔 너무나 중대한 문제였다.

“Melly Lowel Marketing”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고결하게 존재하는 믿음을 “돈”이란 환상적인 개념으로 깨어버리는 자칫하다간 사람관계라는 것을 아예 없앨 수 있는 방식이다. 자신들은 자본주의의 첨단을 바라보는 선진적인 판매방식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가장 친한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자신에게 벅차기만 한 경제적 부담을 지고 나가떨어지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다. 그런데도 이것은 점점 확산되어 도시, 농촌, 대학할 것없이 심지어는 민주단체들에게까지 침투되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지탁연 가족 여러분 조심하세요.)

자본주의 속에서는 그야말로 돈이 최

고라고 하지만, 한달을 열심히 일해서 어렵게 사아가는 노동자들이 있을진대 어떻게 순간의 일확천금에 여지없이 무너져 가야 하는 건지..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벌어서 여러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사는 것이 문득 그리워지는 지금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조금은 부족해도 모두가 함께 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아닌가? 지금 전화벨이 울리고 있다.

"3일만에 백만원 벌어들래?"

"아니, 나는 30년만에 참세상 만들어볼래."

재정사업으로

화장품가게를 열며

신미자 (구로 새싹놀이방)

세월은 흐르는 물과 같다고 하였던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 빠르구나하고 새삼 느낀다. 었그제 엄마 품에서 떨어지기 싫어서 앙앙 울던 녀석들이 벌써 의젓한 국민학교 3학년 형아가 되었으니 말이다. 새삼 우리들의 지난 날들을 되돌아 보게 한다.

항상 허덕이는 탁아소 재정.

보리차다, 양말이다, 일일찻집, 주점 등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몸이 녹는지 상하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들 돌보는 일보다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가 근심스레 살피며 탁아소 재정 메꾸기 위해 전전긍긍하던 날들..

교사는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져 있는 동안, 엄마의 역할과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날을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는 우선 탁아소의 재정이 안정되어야 한다.

막연하게나마 재정사업과 지역주민을 연결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4년에 걸쳐 걸려진 졸업생 자모들의 모임인 '새싹회'를 만들게 되었다. 만든 지 1년 8개월동안 회원 변동이라고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이유로 탈퇴한 2명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1명으로 모이고 있다.

새싹회를 중심으로 하여 새싹놀이방 자모, 이웃 공부방 자모, 지역주민 소수와 함께 경제사업팀을 구성하였다. 초기 출자회원 30명이 매월1만원씩 30개월을 출자하기로 하면서 '두레회'를 발족했다. 7개월동안 적립하는 동안 신용협동조합적금을 들어서 대출을 1천만원 받아 목돈을 확보했으나, 새로운 어려움이 또 있었다.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 하는지 많은 고민을 해야했다. 자영업과 월급쟁이의 차이를 조절하면서 가능한 편한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업종이라야 실무자 물색에 손쉽겠다는 판단에 화장품가게를 하기로 결정했다.

새로운 희망과 부푼 가슴으로 코너개설을 하였으나 우리가 바라던 만큼 이익을 남지 못했다. 현재 3개월 동안 현상 유지 정도이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과제는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지역에서 두레회가 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을 홍보해야 되며 지역주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들의 것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회원들 유동이 있다는 것이다. 찌는 더위속에서도 내일을 위해 전진하는 지탁연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비가와도 이미 젖은 자는 다시 젖지않다를 읽으

심선경 (안산 꿈나무 어린이네)

독서를 그리 취미 삼지 않던 내가 우연히 신문에서 「비가와도 ...」 책소개를 보았다. 언뜻 제목을 보고는 웬 통속소설인가 했다. 그러나 한번 쬼은 갑자기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떠나고픈 충동을 느끼고, 하루 하루를 그냥 살다가 문득 문득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잘 살고 있는지?' '난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며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 하게 되는 나로써는 귀향적이며, 자전적으로 보이는 이 소설에 구미가 당겼다.

이 소설의 주인공 기수는 삼십이 넘은 운동권의 활동가로서 '92년 대선 시기에 돌연 휴양을 핑계로 자신의 고향 표곡으로 떠난다. 고향에서 지내는 한달 생활 동안 기수는 자신의 고민을 겉으로 드러내놓지 않는다.

운동내에 번지고 있다는 회의와 동요가 아닐까하는 후배와의 우려섞인 만남, 그리고 민, 정숙, 은미 등 주위의 다양한 인물의 만남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말해주고 있다.

기수는 창녀인 은미와의 만남속에서 자신이 사랑해야 할 것이 존재 자체라는 것을 깨닫는다. 인간은 유치하고 이기적이며 허세로 가득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굴레이며 본질이다.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 모든 것을 수락하고 인정

할때 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세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좋은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도, 사랑이 행동을 만드는 자리마다 조금씩 달라질 것이다. 존재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전혀 다른 세상이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의 풍경이 바뀌면 세계의 풍경이 달라질 수 있듯이, 거듭나는 몇 개의 새로운 풍경들이 세상을 다른 풍경으로 만드는 것이다 진부하고 새삼스럽지만 이런 정리를 하며 주인공 기수는 서울로 향하며 소설은 끝난다.

한달간 기수는 '뒤돌아 보는 자'였다. 그러나 회의적, 관념적이기보다는 희망적이었다.

「비가와도...」이 제목은 우리는 시대에 젖고 사람에 젖고 인생에 젖고, 그래도 비가 오면 또 젖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이미 젖었으므로 또다시 비바람이 몰아친다 해도 젖으면 젖는대로 내일의 우리를 준비해 나가리란 의미로 부쳐졌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 또한 내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위토가 되는 듯도 하다.

하지만 과연 나는 젖을 대로 젖어있는지? 나의 생활과 나의 일에 대해 얼마나 젖어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들의 목소리에 실을 원고를 구합니다.
지탁연 가족 여러분의 진솔한 느낌이 담긴..
매월 20일까지 편집부로 주세요.

새책 소개

『대지의 딸』

피넛/한울, 글쓴이/아그네스 스 메들리, 옮긴이/태혜숙, 값/6천5백원

1892년 미국에서 태어나 교사, 저널리스트, 사회주의 혁명가, 인도민족독립운동과 중국혁명에 가담하는 등 1953년 중국 북경 근교에 묻히기까지 열성적인 삶을 살아온 여성이다. 이 책은 글쓴이의 자전적 성장소설로 주인공 마리 로저스의 가난한 어린시절, 지식을 갈구하면서 도시로 와서 겪게 되는 학교생활과 친구들, 형제들의 삶이 추억을 더듬어가는 식으로 쓰여진 소설이다. 특히 이 소설의 강점은 주인공의 부모와 주변 여성들의 삶을 통해, 주인공의 두번에 걸쳐 결혼의 실패 등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불평등함과 이를 극복해가려는 마리 로저스의 생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자인 동시에 '여성이 해방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해방이란 없고, 아시아 민주이 해방되지 않고서는 전 세계적 해방이란 없다.'는 그의 생각이 글쓴이의 독특한 체험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참된 시작』

피넛/창작과 비평사, 글쓴이/박노해, 값/3천5백원

『노동의 새벽』에 이은 박노해 시인의 두번째 시집으로 제 4부까지 있다. 간혀있는 시인의 현 상황을 담은 제1부, 제2부와 더불어 제3부, 제4부는 그의 분노, 풍자, 직설적인 언어가 다소 거칠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울려준다.

『문제의 교사』

피넛/서원, 글쓴이/A.S. 니일, 옮긴이/김정환, 값/5천원

서원에서 펴낸 섬머힐 교육 시리즈 중 한권인 이책은 과연 교사란 어떤 존재인가를 국가, 교과, 심리학, 성(性), 권위, 종교, 시험, 사회 등과 연관시켜 글쓴이의 뚜렷한 교육관을 가지고 쓴 글이다.

현재 행해지고 있는 교육의 획일화와 거기에 공헌하는 교사의 위치와 함께 교사란 어린이에게 어떠한 존재여만 하는가가 읽는 사람에게 반성할 기회를 주고 질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책이다.

본 회 사무실 이전 안내

구로구 구로5동에 위치한 본 회 사무실이 <다음>과 같이 이사를 합니다

< 다음 >

- ◆ 이전 일시: 1993년 7월 31일 (토) (예정)
- ◆ 이전 장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3층 (우 100-391)
- ◆ 이전 전화: 미정
- ◆ 우편물은 이전일 전에 도착하게 하거나 이전하는 장소로 부쳐 주세요.

■ 자료회원 신청 안내 ■

안녕하십니까?

본회는 매월 탁아활동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와 탁아소에서 꼭 알아야 할 소식을 모아 탁아활동의 길잡이 「함께 가는 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본회는 「함께 가는 길」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자료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자료회원이 되시면

1.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매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소식지외에 본 회에서 만드는 자료집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자료회원 신청은

1. 자료회원 신청을 사무국으로 합니다.
(주소, 연락처, 신청자 (어린이집) 이름, 우편번호)
2. 회비를 다음으로 송금해 주세요.
3.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해 주세요.

----- 다 음 -----
* 송금지: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 회비: 6개월 회비 만원, 1년 회비 2만원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02-838-3296~7)

1993년 하계 수련회를 엽니다!!

< 수련회 일정 >

♣ 8월 2일(월) ♣

2:00 - 2:30	방배치와 접수
2:30 - 3:30	개회식 (간단한 지역소개 및 생활수칙등 공유)
3:30 - 5:00	강연 - 예정: 사회복지 5개년계획에 대한 평가및 활동전망 (강사 - 김연명, 사회복지예산확보를 위한 공대위 정책위원장)
5:00 - 6:30	민간탁아소 연대의 현황및 전망
6:30 - 7:30	저녁식사
7:30 - 8:00	새노래 배우기
8:00 - 10:00	토론
10:00 - 10:30	하루평가
10:30	취침

♣ 8월 3일(화) ♣

7:00 - 7:30	기상, 세면
7:30 - 8:00	체조
8:00 - 9:00	아침식사
9:00 - 12:30	아동분반 활동 1시간은 전체 음악교육, 2시간30분은 분반활동(그림지도, 문제행동, 놀이감)
12:30 - 1:30	점심식사
1:30 - 7:00	체육대회
7:00 - 8:00	저녁식사 및 세면
8:00 - 10:30	지역소개및 장기자랑, 뒷풀이

♣ 8월 4일(수) ♣

7:30 - 8:00	기상및 세면
8:00 - 8:30	체조
8:30 - 9:30	아침식사
9:30 - 11:30	강연 (주제: 통일에 관하여)
11:30 - 12:30	지역평가 및 정리
12:30 - 1:00	폐회식

♣♣♣ 체육대회 일정 ♣♣♣

1:30 - 2:30	또래별 조 나누기 (개조)와 준비 (깃발, 구호, 선수선발등) 선수는 배구 9명과 피구 20명선발
2:30 - 3:00	배구 준결승 (예선) - 9인제, 15점, 3판
3:00 - 3:30	개회식 **깃발들고 입장 - ~~응원전~~ (구호, 노래) - 선수전입문 - 체조 탈춤 - 자리배치 - 전체 노래및 율동
3:30 - 4:30	사각피구 (한조에 20명씩)
4:30 - 6:00	미니 올림픽 (무조건 나이별) ** 문제 맞추기 - 농구공 넣기 - 후라후프 돌리기 - 공동 줄 넘기 - 소지품 잇기 (5m) - 물나르기 - 김밥말이 - 떡먹기 - 음료수 1.5L 먹기 - 피라밋쌓기 (기념촬영)
6:00 - 6:20	배구결승 (9인제, 15점, 3판)
6:20 - 7:00	한조에 4명씩 릴레이 마라톤과 폐회식

시상식은 뒷풀이 시간에 한다.

점수계산에는 응원전과 팀별 단합도도 포함된다.

★ 일시: 1993년 8월 2일 - 4일 (월-수)

★ 장소: 서울 숭실대학교 내 사회봉사관

★ 회비: 개인당 3만원

★ 준비물: 필기도구, 간단한 세면도구, 탁아소 홍보책자 등

1993년 하계 수련회는..

1. 전국의 지탁연 가족들의 정다운 얼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탁아활동의 선, 후배가 함께 하는 자리입니다.
3. 아이들을 더욱 잘 돌볼 수 있는 힘을 얻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부에서

* 소식지를 잘 받아 보시고 계신지에 대해 편집부는 궁금합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경우에는 며칠 후에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아예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시간을 다투어 내는 소식이 그나마 한쪽에 처박혀 있지는 않는지요. 꼭 살펴봐주십시오.

* 7월호의 알아봅시다와 지탁연 베틀시장은 편집부 사정으로 실지 못하였습니다. 양해바랍니다.

* 하계수련회와 각 탁아소의 방학이 있는 관계로 인하여 8월호는 휴간하고 9월에 함께 냅니다. 9월호를 기다려 주십시오.

* 자료회원 신청에 관하여

본 회의 월간 소식지인 [함께 가는 길] 및 그외 탁아에 관련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분들을 자료회원으로 모십니다. 각 지역위원회에서 만나고 있는 민간탁아소들에게 소식을 권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신청은 사무국으로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께 가는 길]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다솔회 20,000원
(북부지역 전.현직교사 모임)

* 7월을 맞이하여 상반기 활동을 점검 하듯 내 마음을 가다듬어 처음 일할 때의 의욕과 설레임을 되찾아 7월 이후에는 열심히 살아야겠다. 지탁연 가족 여러분도 나와 같은 마음이겠지요?

*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사를 준비하고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고 준비하는 사목국 식구들에게 복 있으라! (정은)

함께 가는 길
7월호 <13호>

*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구로구 구로5동 41번지 16호
02) 838-3296~7

펴낸이: 최현숙
무은이: 정희연, 이애용, 서정은
펴낸날: 1993년 7월 15일
